

# 한말의 의병론자 이기진(李起振)의 삶과 사상

구완희 \*

I. 머리말	IV. 이기진의 화이관(華夷觀)과 상제관(上帝觀)
II. 이기진의 가문적 배경과 생애	(上帝觀)
III. '이씨세적(李氏世蹟)'과 이기진의 정체성	VI. 맺음말

## I. 머리말

한말의 의병사에서 제천의병, 즉 호좌의진(湖左義陣)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리고 의병을 주도해 나간 의병장 유인석(柳麟錫)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비교적 일찍부터 이루어졌다.<sup>1)</sup> 그러나 유인석은 춘천에 지역적 기

\*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1) 박성수, 「구한말 의병전쟁과 유교적 애국사상」, 『대동문화연구』 6·7, 1970.

유명중, 「의군도총재 유인석의 사상」, 『동양문화』 17, 1976.

이동우, 「의병장 유인석의 의병운동고」, 『성대사림』 2, 1977.

김도형, 「의암 유인석의 정치사상 연구」, 『한국사연구』 25, 1979.

유병용, 「유인석 제천의병항쟁의 제한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 『강원의병운동사』, 1987.

유한철, 『유인석의 사상과 의병활동』, 독립기념관, 1992.

\_\_\_\_\_, 「유인석 의병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6.

박민영, 「의암 유인석의 위정척사운동」, 『청계사학』 3, 1986.

\_\_\_\_\_, 「구한말 서북 변경지역의 의병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반을 두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의병이 구체적으로 전개된 제천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일정한 설명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제천의 장담(長潭)에서 이루어진 유중교(柳重敎) 이래의 강학과정에서 형성된 인적인 토대가 부분적으로 주목되기도 하였다.<sup>2)</sup>

의병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라는 면에 주목할 때에 사군지역 출신의 지도자 그룹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의병론자들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불과하며,<sup>3)</sup> 제천-충주의 사이에서 살았던, 즉 의병항쟁의 현장에서 살았던 이기진(李起振)에 관한 이 글도 그런 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이기진은 이조승(李肇承), 홍선표(洪選杓), 정화용(鄭華鎔), 이정규(李正奎) 등과 함께 호좌의진의 대장 유인석의 종사(從事)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지금까지 유인석의 종사 그룹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 따라서 유인석을 보좌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기진에 관한 이번 연구는 종사 그룹에 대한 연구에 일환이기도 하다.

이기진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전하는 것이 없다. 그의 스승이었던 유중교나 유인석의 문집, 그리고 호좌의진에서 함께 종사로 활동한 이정규나 정화용의 문집에도 편지 한 쪽 전하는 것이 없으며, 박정수가 편찬한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에 단편적인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이기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그 자신이 남긴 자료를 통하여 추적이 가능할 뿐이다. 이는 그가 화서학과 내에서의 비교적 지명도가 낮은 인물이었던 탓이고, 아울러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던 탓이라고 일단 파악된다.

그러나 자료의 빈곤이 연구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많이 남긴 몇몇 걸출한 의병 지도자에 대한 연구는 의병부대, 또는 의병 연구를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의병 부대는 의병 지도자 외에도 그를 보좌했던 보좌 집단이나 그를 추종했던 농민층까지를 아우를 때에 그

2) 김상기는 ‘제천항음례’ 참석자들의 일람표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참석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303-310면.

3) 구원희, 「한말 을미의병기 장충식의 생애와 의병노선」, 『조선사연구』 13, 2004.  
 \_\_\_\_\_, 「한말 의병장 정운경의 생애」, 『조선사연구』 14, 2005.

성격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이기진처럼 핵심 측근의 자리에 있었 으면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에 관한 연구는 의진의 성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기진에 대한 검토는 일찍이 최재우에 의해 이루어진 적이 있다.<sup>4)</sup> 위정척사사상, 의병활동, 향약운동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이 연구는 실제로 가능한 연구주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지금은 보기 어려운 원전에 더 가까운 자료를 통한 연구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후 의병사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서 보완하거나 교정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그가 이기진의 사상을 설명하면서 스승인 유중교나 유인석같은 화서학과 학자들의 사상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도 재고하여야 할 부분이다. 화서학과 내에서의 차이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기진이 풍성하게 남긴 가문에 관한 자료를 통해 선대에 관한 인식과 사회 참여 활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이용될 주된 연구 자료는 이기진의 문집인 『명와집(明窩集)』이다. 현전하는 『명와집』은 1988년에 이기진의 손자인 이정재(李貞宰)가 주도하여 2책으로 발행한 것으로 최근에 다시 영인되었는데, 책을 엮은 형식이 매우 혼란스럽다.<sup>5)</sup> 본래 수고본(手藁本)으로 6권 6책 분량의 『명와집』이 있었다고 하는데,<sup>6)</sup> 현재로서는 존재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오늘날 『명와집』이 갖는 문제점은 훗날 원자료가 확인될 수 있을 때에 새로운 형태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최재우, 「의병 이기진 연구」, 『예성문화』 9, 1988.

5) 1988년에 석판본으로 출간된 『명와집』의 내부 목차를 보면 편자가 권(卷)의 개념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권(卷之上)은 4개의 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권2가 두 번 있고, 권3은 없음), 권별로 쪽수를 표시하는 전통적인 제책 원칙과는 달리 상권을 통틀어 번호를 매기고 있다. 반면에 하권(卷之下)은 별도의 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자료를 문집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에 벗어난 오류도 적지 않아 보이며, 본문 중에 있다고 표기된 문서가 빠져 있기도 하다. 이 자료에 이호창(李鎬昌)이 지은 묘갈명을 부록한 『명와집』이 2006년 10월에 다시 영인되었다(내제문화자료총서 12, 제천, 내제문화연구회).

6) 최재우, 앞의 논문. 최재우는 이기진의 손자인 李貞宰가 소장하고 있던 2종의 『명와집』을 보았는데, 하나는 이기진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들인 李康協이 정리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명와집』은 이강협이 정리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한다(2006. 10. 13).

## II. 이기진의 가문 배경과 생애

이기진의 본관은 전주, 호는 명와(明窩), 자는 한여(翰汝)이다. 초년에는 이름을 기진(起振)이라 하였으나 삼십을 전후하여 기종(起宗)으로 바꾸고 자도 효백(孝伯)으로 바꾸었다.<sup>7)</sup> 1869년에 제천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충주 동량면 하곡(荷谷, 하실)의 구석(龜石) 마을에서 형의(衡儀)의 아들로 태어났고, 혼인한 직후인 15세 때에 백부인 치의(致儀)에게 출계했다.<sup>8)</sup>

그가 태어난 하곡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예들이 모여 사는 동성(同姓) 마을이었다. 경기 지역의 근거지를 떠나 면위산(免危山, 婦山) 아래의 하곡 마을에 정착한 것은 효령대군의 8세손이자 이기진의 10대조인 호(浩, 1555-1626) 때의 일이었으므로 17세기 초의 일이었다. 선대의 산소가 고양(高陽), 또는 금천(衿川)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의 이 집안의 근거지는 여느 왕족의 경우처럼 서울 또는 근기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sup>9)</sup> 일찍이 영릉(英陵) 참봉을 역임했던 호는 임난 때에 강원도 홍천(洪川)에서 피난살이를 했고, 난리가 끝난 후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최종적으로 하곡으로 옮긴 것이었다. 궁벽한 곳으로 근거지를 옮긴 것과 관련하여 그는 ‘자손들을 불리한 여건에 두어서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라 하였다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근기 지역의 기반이 약화된 왕족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0)</sup> 임난을 계기로 하여 사족들의 근거지가 많이 이동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호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그의 자손들은 삼백 년 남짓한 기간을 거치도록 하곡에서 동성 마을을 발전시켜왔다. 그들은 효령대군과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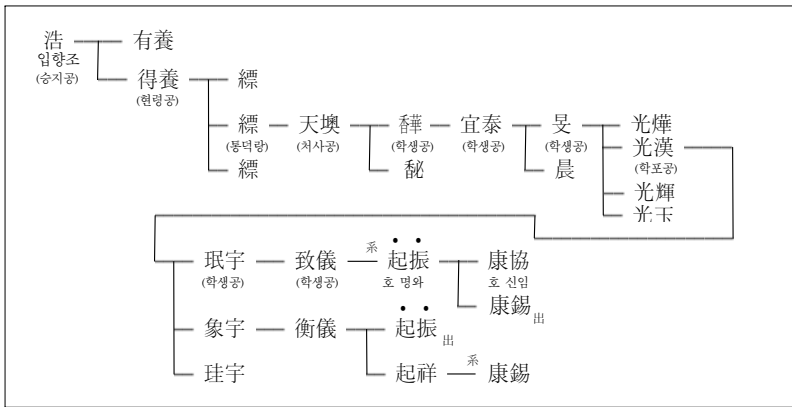
7) 이기진 본인은 28세때까지 기진이라 했다고 한다. 『연월기』, 39세 정미 4월, 『명와집』 하권, 40쪽 하. 그러나 32세때까지도 ‘기진’이란 이름을 쓴 예가 있다. 『與申景元錫祖(경자 3월)』, 『명와집』 상권, 25면 상.

8) 『年月記』, 『명와집』 하. 하곡(荷谷)은 하천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 국실·둔덕말·하실·노실·송평·뱃들·북쟁이 등의 마을이 있었으나 댐의 건설로 많은 마을이 수몰되고 일부만 남아 있음. 정토사의 옛 터전이다.

9) 『孝寧大君七代孫全州李氏承旨公派譜』, 1968. 『李氏世蹟』, 『명와집』 하권.

10) 『이씨세적』 중 ‘承旨公遺蹟’, 『명와집』 하권, 64면 상-65면 상.

서도 호가 증직받은 관명에서 유래한 ‘승지공파(承旨公派)’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호의 두 아들인 유양(有養)과 득양(得養, 이기진의 9대조), 유양의 아들인 적(績)의 대에 이르기까지는 출사(出仕)하였지만,<sup>11)</sup> 이후 이기진의 대에 이르도록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대신 향촌에 머물면서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서 머물러 있었다. 하곡에 정착한 후의 그의 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괄호 안의 표현은 '이씨세적'을 따름

이기진은 조부(象字)의 지도 아래 유년기에 영춘 현감이던 원강(元絳),<sup>12)</sup> 노곡(蘆谷) 연기원(延起元)에게 배웠고,<sup>13)</sup> 소년기에 만성(晩醒) 이의영(李毅英)을 만나 6년 넘게 배우면서 사서와 통감, 시전 등을 배웠다.<sup>14)</sup> 이후 22세, 24세 때에 이기진은 두 차례에 걸쳐 과거에 응시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지만,<sup>15)</sup> 이는 그가 처음으로 도성의 문물을 견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1884년에 복색을 고치라는 조정의 지시가 내려지자 별 생각 없이 소매 좁은

11) 『이씨세적』 중 ‘승지공유적’·‘縣令公遺蹟’, 『명와집』 하권, 64면 상-66면 하.  
 12) 『연월기』, 5세 계유, 『명와집』 하권, 18면 하. 원강은 1856년 8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영춘 현감을 역임했다(『괄도총목』).  
 13) 『연월기』, 10세 무인, 『명와집』 하권, 18면 하.  
 14) 『연월기』, 14세-20세, 『명와집』 하권, 19면 상-21면 하. 자료에 나타나는 학습의 순서는 통감, 중용, 맹자, 논어, 고문, 시전, 선전, 소학, 대학 등이다.  
 15) 『명와집』 하권, 22면 상·23면 상.

두루마기를 입었다가 부친의 엄한 질책을 받았다는 것으로 미루어<sup>16)</sup> 화서학 과정에서 강조하는 법복(法服)에 대한 관심도 처음에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이 스물을 넘기면서 이기진은 스승인 이의영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었던 성리학에 대한 갈증을 품고 있었다.<sup>17)</sup> 마침 함경도 출신으로 제천의 모산 마을에 머물면서 강학하고 있던 의당(毅堂) 박세화(朴世和)에 대한 소문을 높이 듣고 그를 찾아 도를 물었다. 그러나 이때 제천 가는 길목인 공전(公田)에서 이락여(李樂汝)를 통하여 성재(省齋) 유중교라는 학자에 대한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이 그의 인생에 큰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듬해에 벗인 박성행(朴性行)과 함께 처음으로 제천의 장담(長潭)마을에서 강학하고 있던 유중교를 찾아 제자의 예를 갖추었으니 그때 나이 23세였다. 이기진은 유중교가 강조하고 있던 주희(朱熹)-송시열(宋時烈)-이항로(李恒老)로 이어지는 학문적 전통, 열흘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와 토론, 향음례 의식 등에 큰 자극을 받아 길게는 몇 달씩, 짧게는 보름씩 장담에 머물면서 새로운 벗들을 만나고 화이론(華夷論)을 축으로 하는 화서학(華西學)의 세례를 받았다.<sup>18)</sup>

새로운 스승과의 만남은 길지 않았다. 2년 후인 1893년 봄에 유중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sup>19)</sup> 이후 이기진은 화서학의 연원을 좇아 벽계(槩溪)를 답사하고 박경수(朴慶壽)같은 동문 선배들도 만났다. 이항로의 ‘어록(語錄)’이나 『여숙강규(閻塾講規)』같은 교육 시스템에도 관심을 쏟았다.<sup>20)</sup> 그리고 스승의 문집인 『성재집(省齋集)』을 발간하기 위한 사업에도 동참하였다.<sup>21)</sup>

한편 이 무렵 이기진은 역사의 격랑에 직면하게 되었다. 1894년에 동학(東學) 농민군이 크게 일어났고, 이를 진압한다는 핑계로 일본군이 개입한 것이다. 일본군이 서울을 장악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이기진은 몸소 상경하여 일본

16) 「이씨세적」, 化超公遺蹟, 『명와집』 하권, 74면 상.

17) 「연월기」, 20세 무자, 『명와집』 하권, 21면 하.

18) 현전하는 『長潭講錄』에는 이기진이 출입한 기록이 없으므로, 추후에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19) 「유중교 연보」, 『성재집』(鉛印本, 1926) 권58, 51면 하.

20) 「연월기」, 26세 갑오 6월, 『명와집』 하권, 23면 상-하. 「여숙강규」에는 이항로의 교육철학과 조직적인 교육 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화서집』 권31.

21) 「연월기」, 27세 을미 3월, 『명와집』 하권, 24면 하. 을미년 3월에 장담 학인들은 스승인 유중교의 문집을 출간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지의 문인들로부터 기금을 모으는 사업에 착수했다. 관련 문서가 ‘강원대 박물관’ 및 ‘제천의병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군의 위세를 보았다. 즉친인 포도대장 이봉의(李鳳儀)를 만나 일본군을 토벌하는 계책을 물었으나 조정의 방침이 강화인만큼 어쩔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일본에 ‘사대(事大)’할 수밖에 없다는 무기력한 대답만을 들었을 뿐이었다.<sup>22)</sup>

1895년 여름에는 일본군에 의해 왕비가 시해되었다. 조정에서는 ‘왕비를 평민으로 폐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기진은 국모가 시해되었는데 조정의 지침을 좇아 가만히 있는 것은 역적들에게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의병을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성복(成服)하여 인심을 격동시키자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결국 왕비를 평민으로 폐한다는 조치가 취소되었으니 훗날 이기진은 이를 ‘한 오라기 바람이 일어나 술을 엮은 격’이라면서 자부했다.<sup>23)</sup>

이해 연말에는 양력의 사용과 단발을 강요하는 지시가 내려왔다.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스승을 이어 장담의 선비들을 이끌던 유인석을 대장으로 하는 제천의병, 즉 호좌의진(湖左義陣)이 출범했다. 이기진은 병든 몸을 이끌고 친척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의병에 뛰어들었으니 병신년 초의 일이었고, 그때 나이 28세였다.<sup>24)</sup> 그는 유인석의 종사관으로서 활약하면서 충주성에서의 치열한 수성전에 참여하였다. 이형구(李馨九)를 파수장으로 추천한 일이나<sup>25)</sup> 병사 이장회(李長會)에게 의병 참여를 권하고<sup>26)</sup> 백성들에게서 군수물자를 징발할 때에 신중히 할 것을 이형구에게 부탁하는 편지는 이 때의 것이다.<sup>27)</sup> 그는 후에 이 때의 일에 대해 ‘바람 · 이슬 맞으며 먹고 자는 고통, 탄환과 화살을 피하는 걱정, 부대내의 갈등하는 것을 어루만지는 것, 적세의 허실을 정탐하는 것, 마을마다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등이 어려웠다’고 술회했다.<sup>28)</sup> 특

22) 『연월기』, 26세 갑오 6월, 『명와집』 하권, 23면 상-하. 이봉의(1839-1919)는 총어사 景宇의 자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우포도대장, 총어사 등의 고위 무관직을 지냈으며, 이완용 내각에서 陸軍副將, 軍部大臣을 역임하였고 한일합병 후 남작에 봉해졌다. 『朝鮮紳士寶鑑』 귀족 53.

23) 『乙未國母被禍時處義錄』, 『명와집』 상권, 81면 하-82면 하.

24) 『丙申元朝處義錄』, 『명와집』 상권, 81면 상-하.

『從軍說』, 『명와집』 상권, 82면 하-83면 하.

25) 박정수,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병신 2월 기축(24).

26) 『上李兵使長會』, 『명와집』 상권, 16면 상.

27) 『與李敬文馨九』, 『명와집』, 상권, 23면 상-하.

28) 『종군설』, 『명와집』 상권, 83면 상.

히 충주성 전투에서 포수들을 독려하여 흩어지지 않게 독려했으며,<sup>29)</sup> 아들인 강협(康協)이 기술한 바에 따르면 충주성 전투에서 빗발치는 포탄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서 뺨이 문드러지는 부상을 입을 정도였다고 한다.<sup>30)</sup>

이후 충주에서 물러선 제천의병은 근거지인 제천으로 물러섰다. 이 후 몇 달 동안 의진이 관군과 대치하는 동안 한때 이기진은 병으로 하곡에 물러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향리에서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주-제천의 사이에 있었던 그의 마을 사람들은 이기진이 의병 지도부에 들어가면서 의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곡 마을 뒷산인 옥녀봉에서 동쪽으로 내려온 작은 봉우리에 진지를 구축하고 일본군 및 관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마을 사람들이 산 정상에 돌아가면서 진지를 구축하고 산 아래쪽으로부터 크고 작은 돌과 바위를 옮겨다가 쌓아두고 일본군의 침입을 대비하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으니 이는 제천의병의 대장 중 사이던 이기진의 의병활동이 남긴 구체적 흔적이다.<sup>31)</sup>

‘복수보형(復讐保形)’을 주장하며 관군과 맞서던 제천의병은 결국 근거지 제천을 빼앗겼다. 이후 이기진은 제천의병의 서행(西行)길에 앞장섰다가 전사한 서상렬(徐相烈)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파견되기도 하였다. 결국 병으로 대진(大陣)을 좇지 못한 이기진은 뒤에 남아 있으면서 해외의 동지들과 호응하며, 국내의 사우(士友)들을 이끌고 있던 금계(錦溪) 이근원(李根源), 향와(恒窩) 유중악(柳重岳) 등 유중교의 고제(高弟)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1898년에는 『화서집(華西集)』의 발간을 위한 경비를 모으기 위하여 천 수백리 길을 걸어 황해도 지역의 동문들을 방문하였다.<sup>32)</sup> 이 때 그는 도성을 지나면서 변화된 서울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몇 년 동안 이기진은 송평(宋坪) 마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유인석, 또는 유인석과 함께 요동에 망명한 동문들에게 서신을 보내 서양 오랑캐의 땅에 학자를 파견하여 성

29) 박정수, 『하사안공음미창의사실』 병신 2월 기축(24).

30) 「先考明窩公行蹟」, 『명와집』 하권, 108면 하-109면 상.

31) 이수학의 증언(1937년생, 2006년 9월 일). 이같은 기억은 동년배의 노년층이 공유하는 것이었다.

32) 「海西往還日記」, 『명와집』 하권, 7면 상-17면 하.



인(聖人)의 도를 전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sup>33)</sup> 불교에 대한 혹독한 비판의 글도 이 즈음의 것이다.<sup>34)</sup>

향리에 남은 이기진은 향약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899년에는 일찍이 유종교가 장담에 내려와 설행하였던 마을계를 그대로 옮겨 실시하였다.<sup>35)</sup> 그가 살던 마을이 동성 마을이었으니만치 마을계는 족계적(族契的)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이때 동중 3존장으로는 이주우(李周宇, 81), 이의영(李毅英, 73), 이석우(李錫宇, 56)이, 집강(執綱)에는 이경우(李瓊宇, 51), 집례(執禮)는 이기진(31), 사연(司筵)에는 이용의(李容儀, 19)가 선임되었으니 모두가 전주 이씨 문중 사람들이었다. 그 중 이의영은 그의 스승이기도 했다.

마을계에 관한 소략한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기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이다. 그가 의병전쟁에 뛰어들면서 하곡 마을은 사실상 대외 저항적인 척사 노선을 더하게 되었으며, 송평 마을에서의 강학을 통하여 그 영향력은 확대되었을 것이다. 또다른 면은 마을의 하층민들에 대한 장악력이다. 이미 갑오개혁을 통하여 신분제는 철폐된 상태였지만, 기록에 나오는 변한성(邊漢成), 소임방복돌(方福鬲) 등이 언급되고 있다.<sup>36)</sup>

1903년에 이기진은 유년기부터 살아온 송평 마을을 떠나 하곡으로 이주하였다. 아우인 기상(起祥)이 그를 위하여 하곡에 집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기진은 일찍이 유인석이 써준 ‘정명와(靜明窩)’란 편액을 걸었다.<sup>37)</sup> 이는 그가 평생 원하던 ‘명덕(明德)에 고요히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그는 제자를 가르치는 한편 조심스럽게 벼슬길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

33) 「上毅菴先生(기해 2월)」, 『명와집』 상권, 11면 상. 「與在遼同門士友僉執事」, 『명와집』 상권, 22면 상.

34) 이기진은 불교에 대하여 대단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1897년 겨울에 『寒水齋先生文集』을 간행하는 문제로 단양의 상선암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불교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남겼다. 「責佛說」, 『명와집』 상권, 35면 하. 「題上仙菴住持壁上」, 『명와집』 상권, 36면 하-37면 상.

35) 「荷山閭族立契約束」, 『명와집』 상권, 97면 하. 「堤川長潭里立契約束」, 『성재집』 권36, 36면 상. 연보에 의하면 유종교는 1891년 봄에 「長潭里社講信儀」를 짓고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춘추로 이를 행하였다고 한다. 「(유종교)年譜, 신묘」, 『성재집』 권58, 43면 상-하.

36) 「洞中三尊長」, 『명와집』 상권, 101면 하-102면 상.

37) 「免危書社堂室記」, 『명와집』 하권, 4면 하-5면 하. 「언월기」, 38세 병오, 『명와집』 하권, 36면 상.

던 것으로 보인다. 1904년에 족대부인 이승우(李勝宇)가 충북관찰사로 부임하자 그를 도와 치적을 남기게 했다.<sup>38)</sup> 그리고 이 치적으로 말미암아 이승우가 일찍이 홍주 관찰사 시절에 의병을 배신했던 허물을 다소나마 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sup>39)</sup> 이 무렵 성균관의 교수(教授)인 이상영(李商永)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학문을 칭송하고 시절을 논한 것이나,<sup>40)</sup> 판서 윤용식(尹容植)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신념(포부?)을 피력한 것은 구사(求仕) 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41)</sup> 이같은 그의 처신은 함께 의병 전쟁에 뛰어들었던 동지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1904년 겨울에 이기진은 향리에서 동약을 크게 실시했다. 도약정에는 정승렬(鄭承烈), 부약정에는 이구의(李九儀)·고명열(高命說), 집례에는 이강수(李康秀), 직월에는 이기진, 사서(司書)에는 이용의(李容儀), 사화(司貨)에는 이강완(李康完), 검색(檢色)에는 변한성 등이 일을 맡았다.<sup>42)</sup> 이와 관련한 동약 문서가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전에 실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중 중심의 족계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약에 대하여 이기진은 관찰사와 협의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sup>43)</sup> 이승우가 관찰로 재직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이 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유인석의 영향 하에 실시된 ‘체천향약’과 마찬가지로 척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일진회(一進會)를 견제하는 구실을 하였던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동약의 규칙과 함께 남아 있는 ‘흥립사약설(興立四約說)’에서 이기진은 당시의 상황을 ‘동쪽의 오랑캐가 우리의 의관을 찢고 서양의 악귀들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으

38) 『연월기』 36세-37세, 『명와집』 하권, 33면 하-35면 상. 「선고명와공행적」, 『명와집』 하권, 110면 하-111면 상.

39) 이승우는 을미의병 당시에 홍주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김복한 등과 함께 의병을 도모하다가 배신한 인물이다. 따라서 의병론자들에게 이승우는 ‘변절자’로 지탄받았다.

40) 「上李教授商永書(계묘 7월 22일)」, 『명와집』 상권, 20면 상-21면 상.

41) 「上尹判書容植(계묘 7월)」, 『명와집』 상권, 18면 상-20면 상.

42) 『約員錄』, 『명와집』 상권, 102면 상.

43) 『연월기』, 36세 갑진 11월, 『명와집』 하권, 34면 하.

며,<sup>44)</sup> 동약은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

만년에 접어들면서 이기진은 질병에 시달렸다. 동생 내외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 불행도 겪었다.<sup>45)</sup> 새로 부임한 관찰사는 머리끄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마을마다 신식 학교를 세우는 등 개혁 정책을 밀어부쳤다. 이기진은 이를 개탄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저항은 내려온 지침을 돌려보내는 일 뿐이었다.<sup>46)</sup>

이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친 이기진은 관심을 안으로 돌렸다. 38세가 되던 해에 ‘이씨세적(李氏世蹟)’과 ‘이씨가훈(李氏家訓)’을 마무리하였던데서 보듯이 집안의 내력을 정리하고 후손에게 교훈을 내리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왕족의 후예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면서 향촌에 묻혀 살면서 신민(臣民)의 도리를 다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를 모시는데 시작하여 임금을 모시고 출세함으로써 마무리된다’는 효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개탄하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만년의 이기진은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남기는 가훈의 머리말 끝에 적은 글에서 보듯이 암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기진의 가훈을 마무리하던 1906년 여름을 이렇게 표현했다.

영력 이후 260년인 병오년 여름 5월. 왜국 공사관 임권조(林權助)와 장곡천(長谷川) 등이 우리 주상을 위협하고 우리 조정의 신하를 강제하여 장차 백성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고자 하니 우리 인종을 모멸하는 화가 조석간에 박두하였다. 내가 먼위산 속에 거처하면서 이 문자를 지어 자손들에게 보이니 죽도록 변하지 않을 의리인 것이다.<sup>47)</sup>

1907년 여름, 고종이 강제로 퇴위 당했고, 인민들이 봉기하여 수없이 살육당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기진은 의병을 일으키려 하는 윤익선(尹益善)을 위하여 격문을 지어 주는 한편, 의병을 일으키기에 앞서 천지(天地)와

44) 『興立四約說』, 『명와집』 상권, 105면 상.

45) 『연월기』, 37세 을사 4월, 『명와집』 하권, 35면 상-하.

46) 『연월기』, 38세 병오 2월, 『명와집』 하권, 35면 하.

47) 『李氏家訓立篇目發明』, 『명와집』 하권, 77면 하.

태조대왕, 하늘에 계신 영령들에게 고하였다.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고하는 격문도 지었다.<sup>48)</sup>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채 이듬해 6월에 별세하고 말았으니 향년 40이었고 강협(康協)·강석(康錫) 두 아들을 남겼다.<sup>49)</sup> 무덤은 본래 송평 뒷산에 있었으나 충주호의 건설 때문에 생긴 수몰로 인하여 그가 강학하던 하곡 마을 뒷산으로 옮겨졌다. 이호창(李鎬昌)이 지은 묘갈명이 새겨진 비석이 무덤 앞에 세워진 것은 1975년이었고, 1990년에는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을 추서되었다.

### Ⅲ. ‘이씨세적(李氏世蹟)’과 이기진의 정체성

이기진의 선대 내력에 대한 역사는 그가 38세에 마무리한 ‘이씨세적’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그는 가족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증교의 가르침을 본받아 오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했다.<sup>50)</sup> 『명와집』 하권 분량의 1/3을 차지하는 ‘이씨세적’은 이기진이 찾아낸 조상의 모습인 동시에 그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의병과 향약운동에 헌신했던 그의 삶이 선조행적과 평가와 밀접히 연관되고 있을 것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씨세적’은 서문에서 명기하였듯이 시조인 한(翰)과 파조(派祖)인 효령대군, 종조(宗祖)인 학포공(學圃公) 광한(光漢)을 중요한 마디로 하여 서술되었다.<sup>51)</sup> 그러나 서술 과정에서의 비중은 그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48) 「연월기」, 39세 정미 7월, 『명와집』 하권, 42면 하. 문집 속에는 윤익선에게 지어 준 격문이 전하지 않음.

49) 강석은 이기진의 생가 아우인 기상(起祥)의 뒤를 이어 출계했다. 『효령대군칠대손전주이씨승지공파보』, 1968.

50) 이에 관한 유증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家乘을 세워 조상의 덕행과 관직을 윗대의 조상은 대대로 기록하고, 가까운 조상은 해마다 기록하여 사당에 간직하여 후대에 전하여 계속 정리하게 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그 먼 조상을 추모하고 높이는 의리를 알게 하라.’ 『이씨세적서』, 『명와집』 하권, 44면 상-하.

51) 위와 같음.

먼저 이씨세적의 첫머리가 왕족임을 강조하는 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득성(得姓) 연원과 고려기의 선대에 대한 간략한 기록을 앞서 수록하기는 하였지만, ‘창업태조대왕유적’, ‘태종대왕유적’, ‘효령대군유적’의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효령대군에 관한 수많은 아름다운 일화들과 영조대에 효령대군 사당인 청권사(淸權祠)가 세워지기까지의 여러 절차를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효령대군은 일찍부터 양녕·효령대군은 동생인 계력(季歷)에게 계승권을 양보하여 주나라의 영광을 가능하게 했던 태백(泰伯)·중옹(仲雍) 형제에 비길 만하였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기진은 이씨세적을 정리하면서 양녕·효령대군 형제는 태백·중옹에 비길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질었다고 칭송했다.<sup>52)</sup> 효령대군에 대하여는 청권사의 상량문을 풀어 쓴 글을 따로 작성하기도 했다.<sup>53)</sup>

효령대군 이후 보성군(寶城君, 합), 울원군(栗原君, 綜), 여양군(呂陽君, 子謙), 전성군(全城君, 蕝)의 5대에 이르는 군호(君號)를 얻은 조상들도 차례로 찬양했다. 특히 울원군은 ‘불교적 자취를 남겼으나 유자(儒者)의 마음으로 나라를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효령대군을 항상 칭송했다고 강조했다.<sup>54)</sup> 이는 불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조선왕조의 공식적인 입장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불교를 배척하였던 이기진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기진은 집안의 성리학적 의리와 척사(斥邪)적 내력을 강조했다. 자신의 선대가 하곡으로 근거지를 옮긴 때를 전후한 대(薨)-즙(楫)-요빈(堯賓)-호(浩)-득양(得養)에 이르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특히 두드러진다. 13대조인 대(薨)에 대하여 이기진은 ‘잘못된 것에 뜻을 두지 말 것이며, 행함에 반드시 정직하라’는 가훈으로 자제를 가르쳤음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선비들과 위정척사(衛正斥邪)로 이름을 남긴 자손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임난과 병자호란 때에 의병과 관련하여 이름을 남긴 손자 요빈(堯賓)·정빈(廷賓), 증손인 잠(潛)·척(滌), 척화의 선비로 이름을 남긴 명(溟), 병자호란 때에 공을 세운 선비인 유양(有養) 등을

52) 「이씨세적-효령대군유적」, 『명와집』 하권. 「淸權祠上樑文解」, 『명와집』 상, 97면 하.

53) 「청권사상량문해」, 『명와집』 상권, 91면 하-97면 하.

54) 「이씨세적-栗原君遺蹟」, 『명와집』 하권, 60면 하.

거론하였다.<sup>55)</sup> 결국 이기진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척사의 논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집안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특히 11대조인 요빈이 임난을 당하여 흥천에 피난살이 할 무렵 집안의 여러 친족을 격동시켜 의병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돕는 일에 힘썼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sup>56)</sup>

또한 이기진은 ‘부귀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간사하지 않기를 구하고(知富貴之爲好 而求不回邪). 빈천함을 싫어하면서도 잘 지켜서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知貧賤之爲惡 而守不搖惑)’는 입향조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sup>57)</sup> 하곡에 자리 잡은 이후에 배출된 자손들 중 집안의 명예를 드높인 여러 예를 들었다. 입향조의 두 아들 유양과 득양이 모두 은일(隱逸)과 유행(儒行)으로 출사하였던 것과, 유양의 처인 홍씨(洪氏)와 그 소생인 적(績), 서(緒), 그리고 서의 처인 윤씨(尹氏)가 모두 효자와 열녀로서 정표(旌表)를 받은 것은 이기진의 집안에 대한 자부심의 중요한 근거였다.<sup>58)</sup>

특히 9대조인 득양에 대한 이기진의 존경은 대단했다. 병자호란을 당하여 강화할 때에 득양의 종숙인 명(溟)이 화이론을 내세우면서 ‘명나라는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청나라는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척사론을 개진한 것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찬사를 보냈다.

우리나라는 황명(皇命)의 제후국으로 이미 북면(北面)하여 이를 섬겨왔습니다. 또 임난 때에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었으니 의리로는 비록 군신(君臣)이지만 은혜로는 실로 부자(父子)와 같습니다. 이제 북쪽 오랑캐가 오만 무례하게도 감히 하늘을 뒤집으려는 짓을 하여 황실을 모욕하고 꺾박하였으며 우리 동쪽 변방의 나라를 도륙질하였으니 이는 만고에 비길데 없는 큰 변고입니다. 슬프도다! 저 원수 도적놈들이여! 맹세하건데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습니다. 원컨대 아저씨께서는 힘을 다해 토복(討復)하시라. 불행히도 운수가 부득이하여 적을 이길 수 없다면 비록 활 시위 한번 당기고 죽더라도 우리가 신자(臣子)의 분수이니 개탄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화이(華夷)의 구분은 절대로 등한하여 간

55) 『이씨세적-全城君遺蹟』, 『명와집』 하권, 62면 하.

56) 『이씨세적-禮賓寺正公遺蹟』, 『명와집』 하권, 63면 하.

57) 『이씨세적-승지공유적』, 『명와집』 하권, 64면 상-하.

58) 『이씨세적-승지공유적』, 『명와집』 하권, 64면 하-65면 상.

과할 수 없는 것이오니 원컨대 아저씨께서는 죽음으로 스스로 맹서하여 잘못된 지경에 이르지 마시고 명예와 의리의 구분을 우뚝 세우십시오. 그 끈고 무쇠같은 말씀 씩씩하여 범할 수 없는 기세가 있음을 양축하나이다.<sup>59)</sup>

이처럼 추상같은 기상은 훗날 의병에 뛰어들었던 이기진의 주장에서 결코 멀지 않은 것이었다. 이기진의 8대조 표(縹)와 관련한 기억도 임난 때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순절한 척(滌), 병자호란때 척화를 부르짖었던 명(溟)을 높였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이기진의 가계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척사의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기진은 자신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재지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7대조인 천옥(天墾)에 대한 서술이 주목된다. 이기진은 벼슬살이를 하다가 하곡으로 옮긴 입향조나 부모의 봉양을 명분으로 출사했던 9대조 득양이 부모의 별세 후에 향리로 물러서고 말았던 것을 높이 평가한 적이 있었지만,<sup>60)</sup> 천옥에 대한 그의 평가는 더욱 적극적이었다. 천옥의 대에 이르러 하곡에 터를 잡은 전주이씨 가문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천옥은 대군의 음덕(陰德)으로 5대 동안 봉군(封君)의 영예를 누렸고, 5대 동안 벼슬살이하면서 영광을 누렸으니 이제 수가 다했다고 여겼다. 따라서 스스로 힘써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자각하고 농업에 전력하면서 서도 가숙을 세워 학문이 그치지 않도록 하였다.<sup>61)</sup> 아울러 초야에서 논밭을 갈면서 임금을 이바지하는 것이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 못지 않는 군신의 의리를 행하는 것이라면서 자손들에게 네 가지 가르침을 남겼다. 이러한 가르침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이기진의 동약에도 반영되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조 선왕의 남긴 법을 거두어, 그 자취를 구하고 그 덕을 본받아 세상에 숨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를 고민하지 않는 것.

59) 『이씨세적-현령공유적』, 『명와집』 하권, 65면 하.

60) 『이씨세적-현령공유적』, 『명와집』 하권, 65면 하-66면 상.

61) 『이씨세적-處士公天墾遺蹟』, 『명와집』 하권, 67면 하-68면 상.

2. 임금을 높이고 윗 사람을 친히 여기는 마음, 수령을 섬겨 공급하는 절차를 삼가 지키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않으며 부지런히 수응하며 힘써 농사지어 춘·추 두 차례 호공(戶貢)으로 바치는 포(布)와 논밭농사 짓는 세를 남보다 뒤에 내지 말고 먼저 납부하고, 마을에서 오류를 밝혀 윤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3. 조정에서 선포하는 훈시, 본읍에서 항상 전하는 지시를 삼가 수습하여 그 취지를 받들어 감히 어기지 않아서 미치지 못하는 악행에 절대로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할 것.
4. 거주하는 마을에는 국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금제(禁制)가 있으니 절대로 범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경계하여 가까이 닥치지 않도록 할 것.<sup>62)</sup>

그밖에도 이기진은 천육이 출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도 나아가지 않았던 재종형 천재(天裁)를 깊이 존경하였던 것, 백부인 울(糸栗)에게 적자가 없어 종통을 계승하였던 것 등을 모두 높이 평가했다.<sup>63)</sup> 이것은 종법(宗法)을 중시하고, 벼슬보다 학문에 우선적 가치를 두었던 조선시기 재지사족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이후 ‘이씨세적’에 나타난 선대 모습에서는 향촌사회의 재지사족으로서의 모습이 보일 뿐 관료지향적인 모습은 찾아 보기 어렵다. 5대조 의태(宜泰)가 지은 ‘자경가(自警歌)’나 고조부 민(旻)이 지은 입향조를 기리는 시와 ‘은산가(隱山歌)’에서는 처사로서의 삶이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sup>64)</sup> 증조부 광한(光漢)에 이르면 농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일을 친히 여기지 않는다면 단지 우리 분수 안의 직분을 잃는 것일 뿐이 아니다. 벼슬길이 이미 끊어졌는데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양육할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안으로 종족을 친히 할 수 없고 밖으로 손님을 접대할 수도 없다. 몸은 가난뱅이의 근심을 면치 못하게 되고 집안은 쓸쓸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니, 어찌 자손을 보호하고 군상(君上)을 받드는 직책을 이룰 수 있겠는가. 힘써서 노력하여 편안하다가 허둥거리지 말지이다.<sup>65)</sup>

62) 「이씨세적-처사공유적」, 『명와집』 하권, 68면 상-68면 하.

63) 「이씨세적-처사공유적」, 『명와집』 하권, 68면 하-69면 상.

64) 「이씨세적-學生公宜泰遺蹟」, 『명와집』 하권, 69면 하. 「이씨세적-學生公旻遺蹟」, 『명와집』 하권, 70면 하.

65) 「이씨세적-學圃公遺蹟」, 『명와집』 하권, 71면 상.



광한이 차자(次子)였기 때문이었는지 광한(증조부)-민우(조부)의 대에 이르러 가계는 상당히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계를 일군 인물은 이기진의 조모이자 광한의 며느리였던 강릉 유씨(劉氏)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벼짜기를 열심히 일삼아 80-90폐미의 돈을 밑천으로 하여 척박한 7일갈이의 밭과 초가집 8간을 청풍 후산동에 장만하여 살아갈 기틀을 장만하였다 함이 그것이다.<sup>66)</sup>

이처럼 이기진은 자신의 집안이 왕족의 후예이면서, 척사의리에 밝고, 착실한 신민의 도리를 다하는 재지사족이라는 점을 ‘이씨세적’을 통하여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은 훗날 스스로 ‘의병의 무리(義徒)’라고 자부할 정도로 치열하게 삶으로 이어졌으며, 재지사족의 도리를 강조하는 향약활동, 심지어 노동의 가치까지를 강조한 그의 생각으로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다.<sup>67)</sup>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긴 가훈에서도 선대 조상들이 남긴 주요 덕목들이 고스란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sup>68)</sup>

#### IV. 이기진의 화이관(華夷觀)과 상제관(上帝觀)

이기진의 글 속에서 성리학의 요체를 이루는 이기론(理氣論)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율곡의 ‘리통기국(理統氣局)’설에 관한 간단한 해설이 보일 뿐이다.<sup>69)</sup> 20대를 넘어서 ‘성명(性命)의 근원’에 대한 관심, 즉 이기론 내지는 심성론(心性論)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증교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기간이 짧았기에 깊은 천착의 기회는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6) 「이씨세적-學生公珉字遺蹟」, 『명와집』 하권, 72면 하.

67) 「勸人勤職說」, 『명와집』 상권, 85면 하-86면 상. 이기진은 밭갈고, 벼짜고, 땀나뭇하고, 독서하는 네 가지 일을 각각 인(仁)·예(禮)·의(義)·지(智)에 비기고 글읽기에만 힘써서는 가정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68) 「不肖慕祖歌」, 『명와집』 하권, 74면 하-75면 상.

69) 「연월기」, 32세 경자, 『명와집』 하권, 27면 하-28면 상.

그러나 유중교의 문하에 들어간 후 그의 화서학의 전통에 대한 자부는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만주에 망명해 있던 시절의 유인석이 과거의 소왕(素王), 즉 제왕의 덕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위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소왕이라 일컫고, 학자를 파견하여 그 가르침을 서양 여러 나라에 퍼자고 주장할 만큼 화서학의 정통성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가 만년에 향리에 머물면서 읊은 ‘동계십삼곡(東溪十三曲)’에서도 제천의 장담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화서학의 권위를 크게 인정하는 의식이 드러난다.

제천의 여러 물길 합쳐서 내 되었네	義源衆澗合成川
이리저리 굽이치며 동쪽으로 흐르도다.	萬折東流自泌然
굽도다, 천 년토록 주인없이 흐르는데	猗彼千秋誰爲主
뒷날 이 자취 몰라줄까 안타깝네.	惟恨後世跡無傳

물길 열세 구비 거슬러 올라가니	踏上溪流十三曲
낮은 산, 너른 들을 장담이 감쌌구나.	山低野廣繞長潭
느지막히 한 스승의 가르침이 베풀어진 곳	天翁晚賢師宅定
길 열어 어리석은 사내들 많이도 건지셨네. <sup>70)</sup>	以道多援溺邪男

실제로 이기진은 화서학파가 유교의 학문적 도통을 이었다고 생각했다. 소왕의 도통을 공자-맹자-정자-주자-율곡-우암-화서-성재-의암으로 설명했던 것은 이를 말하여 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sup>71)</sup> 더러는 유중교의 문인들에게서 상투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화서-중암(重菴)-성재의 도통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평묵(金平默)까지를 포함시키기도 했다.<sup>72)</sup>

화서학에 경도된 이기진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강렬한 화이관이다. 그 자신이 척사신(斥邪臣)의 후예라는 자각을 하고 있었고, 장담에서 화서학파의 세례를 받았던 만큼 화이관을 화서학파와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를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논

70) 「東溪十三曲」, 『명와집』 상권, 6면 상. 7면상.

71) 「天命論」, 『명와집』 상권, 42면 하.

72) 「종군설(1903년)」, 『명와집』 상권, 82면 하.

법이며, 외래의 문물 일체를 배격하는 ‘위정척사(衛正斥邪)’, 나아가 의병 봉기를 정당화하는 실천의 논리이기도 했다.

이기진의 장담에서 수학하던 의병론자들과 화이관을 공유했다. 이등박문등에게 보낸 격문을 통하여 그의 화이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보기로 한다.

지금 네 나라의 하는 짓을 보니 단지 오랑캐처럼 추할 뿐 아니라 그대로 짐승이라. … 아깝도다. 다같이 천지의 원기를 받아 태어났지만 인류가 되어서 그 마음쓰는 도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홀로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데 네 나라는 홀로 금수(禽獸)이니 무엇 때문인가? 대저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단지 일상에서 행하는 짓을 말함이라.<sup>73)</sup>

이처럼 이기진은 ‘일상’ 속에서 사람과 금수의 차이를 드러내려고 애썼다. 즉, 몸가짐의 도리, 가정 생활에서의 도리,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이웃 나라와 사귀는 도리를 통하여 조선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강조했다. 그 중 조선 사람들이 가지는 몸가짐의 도리에 대하여 이기진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니 그 몸과 마음은 반드시 공평하고,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며, 말솜과 기운은 반드시 화창하며, 머리카락과 살갓을 반드시 모두 보존하며, 의관은 반드시 반듯하게 정돈하고, 기호(嗜好)는 반드시 삼가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공손하며, 조약은 반드시 실천하며, 무릇 백 가지 물건과 일을 모두 예의로써 처리하니 혹시라도 절도에 어긋남이 없었다.<sup>74)</sup>

이에 반해 일본은 금수와 같은 나라라고 하면서 ‘아는 것이라고는 식색(食色)을 탐하는 것이요, 숭상하는 것은 빼앗는 욕심 뿐’이니 반드시 ‘하늘이 싫어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이의 분별이 이처럼 일상 속에서 찾아졌기 때문에 그 차별성은 일상 속에서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법복(法服)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73) 『擬檄日使文略』, 『명와집』 상권, 89면 하.

74) 위와 같음.

당시 하곡 마을은 이기진의 영향으로 옛 법복(法服)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의 개탄어린 평가에 따르면 당시 옛 법복을 그대로 입는 풍습을 지키는 곳은 춘천의 가정(柯亭), 제천의 장담, 지평의 금리(錦里), 홍천의 용전(龍田), 평산의 도성(桃城), 태천의 운암(雲岩), 요동의 패왕조(霸王槽), 충주의 병산(屏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75)</sup>

그러나 하곡 마을에서도 현실적으로 소용닿는 개화 문자를 배우지 않고 법복을 강조하는 이들을 비방하는 자들도 점차 생겨나는 추세였다.<sup>76)</sup> 병신년 초는 단발령과 함께 법복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이기진은 옛 스승인 이의영의 아들 종록(鍾祿)이 법복을 입고 새해 인사온 것에 대해 감동어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를 보면 하곡 마을에서도 법복은 벌써 예외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sup>77)</sup>

하이관에 입각한 이기진의 실천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난 것이 의병 활동이었다. 의병에 대하여는 그 나름대로 여러 편의 글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종군설(從軍說)’, ‘상세음(傷世吟)’, ‘거의종시록(擧義終始錄)’ 등이 그것이다. 종군설은 자신이 이웃의 만류를 뿌리치고 의병에 뛰어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짧은 글이지만, 연작시인 ‘상세음’이나 ‘거의종시록’은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 정리한 것이다.

‘상세음’은 을미-병신년간의 일을 8수의 시로 읊은 것이다. 그 내용인즉, 오랑캐를 초빙함·나라의 도적이 오랑캐의 손발이 됨·복제 개혁·국모 시해·단발령·의병 봉기·토벌군이 의병을 도적떼라고 함·양맥(陽脈)이 영영 끊어짐을 차례로 읊었다.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의 직접적인 설명 부분은 기대할 수 없지만, 8편 각각의 작품이 의병 봉기를 둘러싼 역사의 진전 과정에 따라 계기적으로 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참고로 단발령을 읊은 제5곡, 의병 봉기를 읊은 제6곡과 양맥의 단절을 노래한 제8곡을 보면 다음과 같다.

75) 『因守舊法服之俗書示里人益堅其志』, 『명와집』 상권, 39면 하-40면 상.

76) 『講究錄-同塾人康宣』, 『명와집』 상권, 46면 상.

77) 『병신원조치의록』, 『명와집』 상권 81면 하-82면 하.

상투가 잘리는 일을 피할 수 없을까	毀形禍色避無謀
관청의 나졸들은 지체없이 자르라고 독촉하네	官隸促行削不留
집집마다 통곡이니 짐승과 같게 되니	家家慟哭獸同去
누가 있어 우리 원수 갚아 줄텐가	誰有復吾切膚讐

인심을 격동시켜 복수심을 움직이니	人情共動復讐心
하늘조차 나를 말릴 수가 없다네	生我皇天小不禁
격문을 한 장 날리니 팔도가 진동하고	檄告一聲環八域
위태롭던 용사들이 옷자락을 떨쳤다네	濱危勇士盡振襟

옛 골짜기로 돌아오니 흰 구름만 자욱한데	歸藏古峽白雲深
만 갈래 근심으로 모두들 몸서리치네	萬端大憂搥盍擗
한 가닥의 봄별은 어디에서 보존할까	一脈陽春何處保
막다른 길, 찬 눈만 가득하니 정말 긴 어두움. <sup>78)</sup>	窮途大雪永陰陰

『명와집』의 잡저 부분에 들어 있는 ‘거의종시록’은 내용이 가장 체계적이며 양도 많다. 이 글은 원의(原義)·거의(學義)·파병(罷兵)·소명(召命)·나명(拿命)의 다섯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철저하게 유인석을 중심에 두고 기술하였다.<sup>79)</sup> 따라서 각 항목에서는 잘 알려진 격문이나 상소문, 또는 간찰을 적절히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각각의 항목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의’에서는 의병이 일어나기 이전에 장담의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주로 기술했다. 을미년 여름의 흑의령과 국모 시해 당시의 의리를 의병의 단초로 설명했다. 흑의령이 있었을 때의 배경으로 유인석, 주용규, 서상렬 등이 주동이 되어 사군의 선비를 모으고 대규모의 항음례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제천의병의 전사(前史)에서 주목되는 부분인 것은 잘 알려진 부분이다. 그런데 원의에서는 항음례와 함께 유인석이 그의 신념을 표현한 ‘입언(立言)’을 내세웠던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입언은 통역관 출신인 김익진(金益珍)이 박영효에게 제천군수로 자천하여 부임한 후, 제천 선비들의 기를 죽이려 하자 유인석이 크게 써붙인 다음의 글을 말한다.

78) 『傷世吟』, 『명와집』 상권, 9면 상-하.

79) 『學義終始錄』, 『명와집』 상권, 57면 상-80면 상.

아, 슬프도다 4천 년 화하(華夏)의 정맥과 2천년 공맹의 큰 도리, 본조 5백년 의 예악과 전형(典型), 집집이 지키던 수십 세의 관상법도(冠裳法度)가 이제 끊어지는구나. 독서하는 자들이여 어찌할 것인가. 선비가 지키는 것은 선왕의 도리라. 선왕의 범복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고, 선왕의 법언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않고 선왕의 법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선왕의 범복이 변하는 것이니 이는 그 지키는 것을 잃는 것이다. 지키는 것을 잃는다는 것은 천지간에 죄를 짓는 것이요, 성현에게 죄를 짓는 일이요, 선왕에게 죄를 짓는 일이며, 부조(父祖)에게 죄짓는 일이니 살아서 장차 무엇하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영광이라. 금일의 일은 죽음 뿐이라.<sup>80)</sup>

한편 원의에는 장차 의병이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인석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부분은 의병 봉기의 정당성에 대한 유인석의 생각을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훗날 실제로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땅히 친하고 미더운 자인 아무개와 함께 단단히 약속을 하고, 먼저 지위가 높고 명망이 무거운 자에게 가서 ‘난신적자(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아버이를 해치는 자식)는 누구나 벨 수 있다는 의리와 존화양이의 의리, 임금 급이 근심하면 신하가 욱되며, 임금이 욱을 보면 신하가 죽어야 한다는 의리, 샷된 것을 물리치고 선성(先聖)을 법도로 삼는다는 의리, 오늘날의 변고는 차마 보고 듣지 못할 것이라는 의리’를 주장하고, 의거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함께 주선하여 도모하고, 만일 좃지 않거든 의리에 의거하여 죄목을 만들어 끌어내어 목 베고 나서 차례로 격문을 전하며, 군대의 움직임이 우레같이 바람같이 신속하게 하여 격려해야 하며’, … 군량과 마초(馬草) 및 여러 비용은 ‘나라의 저축분과 백성의 창고에서 취하여 써야 할 것’<sup>81)</sup>

‘파병’에서는 의병을 제압하려 하였던 정부쪽의 주장과 이에 대한 의진 쪽의 대응을 기술하였다. 먼저 ‘수령을 죽이고 전곡을 빼앗는다’는 것을 빌미로 의병을 도적떼라고 지적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당시 선유사들이 들고 다니던 문자를 인용하였다. 특히 선유문자는 제천의병 관련 의병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것으로서 거의종시록에 처음 보는 것이다.

80) 「거의종시록-원의」, 『명와집』 상권, 58면 하.

81) 「거의종시록-원의」, 『명와집』 상권, 58면 상.

아아, 너희 무리가 의(義)로 시작하여 난(亂)으로 마감하니 스스로 죄에 빠졌도다. 짐이 이에 너희 죄를 사면하기를 허락하니 너희는 미혹함을 깨닫고 스스로 새로워 지는 길을 열기에 힘쓸지라. 너희가 짐을 보호한다 하면서 오히려 짐의 명령을 거스르고, 너희가 짐의 백성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짐의 백성을 해코지하니 이는 너희 무리가 종내 짐의 말이 짐의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믿지 않는 것인가? 한 두 가지 불쾌한 일이 있었고 그간에 일 때문에 놀란 김에 난을 도모하려는 것인가? 짐이 너희 무리가 비참한 창과 독한 칼날에 죄짓는 것을 차마 좌시할 수 없어 이에 또한 선유위원을 전후에 파견하여 깨우치게 하였으니 화·복은 오직 너희에게 있다. 놀라 떠는 것을 믿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돌아가 직업에 편안할지이다. 명령을 듣는 자는 단연코 추궁하지 않을 것이며, 명을 좇지 않는 자는 왕사(王師)가 도착하는 바 반드시 용서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잘 알고 후회하지 말라.<sup>82)</sup>

이러한 선유문자를 본 의진 내부의 동요는 실제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이기진을 비교적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조칙문을 읽은 후에 여러 군자들이 의논하기를, “가슴 아프도다, 소위 조칙이 비록 원수같은 왜놈의 떨거지이고 나라를 도적질한 놈들에게서 일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주상전하에서 나온 것이다. 그 체면이나 도리로 보아 서로 적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드디어 글을 올리고 서행(西行)에 나섰다.<sup>83)</sup>

그밖에 정선에서 서행에 오르면서 올린 ‘상소문’이나 ‘재격백관문(再檄百官文)’, ‘의병을 같이한 여러 공들에게 보내는 편지’등 잘 알려진 의병 문자를 통하여 화이관과 의병 봉기의 논리를 천명했다. 이후 이어지는 ‘소명’과 ‘나명’에서도 유명한 의병 문자를 적절히 편집하여 서술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폈듯이 이기진의 의병사 인식은 철저하게 유인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만주에서의 기지 건설 문제도 의병운동의 기지라기보다는 ‘날마다 도를 강명(講明)하여 현송(絃誦)하는 위업을 이루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84)</sup>

82) 『거의중시록-파병』, 『명와집』 상권, 66면 상.

83) 위와 같음.

84) 『종군설』, 『명와집』 상권, 83면 하.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병 봉기는 좌절되고 말았다. 이기진은 스스로 ‘천하 만고에 처음으로 있었던 변고’라고 표현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애썼지만, ‘양맥(陽脈)’, 또는 ‘화맥(華脈)’이 영영 끊어졌다고 표현하였듯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기진의 저술 속에 ‘상제(上帝)’의 개념이 자주 드러나는 것이 흥미롭다.

종교와 철학이 분화되기 이전부터 강하고 두려운 존재로서의 천(天)의 개념은 물론 있었다. 그러나 송대의 성리학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원리로서 태극(太極), 또는 ‘리(理)’으로 표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6세기 이후 특히 율곡 계열의 학문적 전통 속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개념인 ‘상제’가 이기진의 저술 속에 새삼 나타난 것이다. 이기진의 저술 속에 보이는 ‘상제’라는 용어는 다음의 예에서 보인다.

A : 불초한 상제의 백성인 이기종은 삼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정성을 모아 마음에 품은 바를 부르짖어 고하오니 살피시어 싫증내지 마시오라. 엎드려 생각하건대 만물은 사람을 영험하게 여기매 성인이 나타나서 사람의 할 일을 정하시니 실수하지 않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사옵니까? 슬프다. 저 오랑캐가 오행을 난잡하게 늘어 놓아 천기를 누설했고 ‘상제’께서 자강하지 못하시니 백성은 무엇을 좇으리오. 상제를 위하여 깊이 근심하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제께서는 성을 크게 내시어 특히 덕(德)이 큰 사람에게 명령하사 이 세상을 깨끗이 소탕하시고 예의를 회복하시되, 해와 달의 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총명을 도우시고, 바람과 우뢰의 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위령(威令)을 도우시고, 봄·여름·가을·겨울 사시(四時)의 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서차(序次)를 도우시고, 비와 이슬의 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퍼져나가는 은덕을 도우시고 산악의 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중후함을 도우시고, 강물과 바다의 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포부를 도우시고 만방인물(萬邦人物)의 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정치와 가르침을 도우신 연후에 상제의 위업이 크게 창성하고 인물이 크게 안정되리니 만세토록 안녕하도록 하는 도리를 머뭇거리거나 느긋하지 마시오라. 외침에 메아리치듯 부응하여 우리가 가슴 속에 품은 바를 도우소서.<sup>85)</sup>

85) 『吶告上帝文』, 『명와집』 상권, 48면 하-49면 상.



B : … 오늘의 세상을 돌아보니 이 어떤 세계던가? 동쪽 오랑캐는 우리의 의관을 찢고 서쪽 아수라같은 자들은 마음을 미혹시키니 가히 어둠이 거리에 가득한 격이로구나. … 요행히 성현께서 남긴 규범이 방책 가운데 명백히 실려있어 ‘상제’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헛된 영혼 중에 사라지지 않았으니, 무엇이 힘들다고 성현의 남긴 규범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며, 무엇이 두려워서 ‘상제’의 내리시는 참된 마음을 밝히지 않는단 말인가. 구하면 반드시 얻지 못할 이치가 없으며, 행하면 반드시 이르지 못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sup>86)</sup>

C : 스스로 이름과 자에 대한 글을 짓다. 나의 첫 이름은 기진이라. 첫 자는 ‘한여’이니 무슨 뜻이였는가? 대저 사람에게는 도리가 있다. 만일 일어나서 떨치지 않으면 그 도는 밝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을 뜻한 것이다.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백례(百禮) 중에서 진작하여, 안으로 선조의 좋은 업적을 계승하고 일가의 윤리를 떨치고, 밖으로 당대의 착한 사람들을 사귀어 일세의 풍화를 진작하여, 위로는 ‘상제’께서 만물을 기르시는 밝은 명령으로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못된 것들로서 떨치지 못하는 자들에 임하여, 임금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친히 여기는 착한 일을 행하게 하니, 이같이 마음을 간직하고 스스로 행한 것이 28년이었다.<sup>87)</sup>

D : 공이 일찍이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효령대군께서 마음줄여 조심 조심 ‘상제’를 섬기신 까닭으로 명예를 무궁하게 하였고, …<sup>88)</sup>

E : 운수가 오면 집안이 편안할 것이요, 운수가 가면 집안이 힘들어 질 것이다. 운명이 ‘상제’에게 있으니 너희들이 유감스러워할 것이 아니다. 선을 닦으면 복이 생길 것이요, 행실이 난잡하면 화가 이를 것이다.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어찌 ‘상제’를 허물하겠는가?<sup>89)</sup>

여기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상제’는 합리적 원리로서의 천(天)이 아니다. 이같은 상제의 개념이 갑자기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실 신앙적 성격이 사라진 합리적 ‘천’, 또는 리(理)의 개념은 대중들의 정신적 평화를 주는 데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따라서 원시 유교의 고전 속에 잠재하던 초월적 존

86) 『홍림사약설』, 『명와집』 상권, 105면 상.

87) 『연월기』, 39세 정미 4월 14일, 『명와집』 하권, 40면 하.

88) 『이씨세적-처사공천옥유적』, 『명와집』 하권, 67면 하.

89) 『불초모조가』, 『명와집』 하권, 74면 하.

재인 상제의 개념은 외부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다.<sup>90)</sup> 따라서 이항로나 유중교·유인석과 같은 화서학과 선학들의 저술에서 잘 보이지 않던 상제 개념이 다시 두드러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만하며, 이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 정치한 연구가 요청된다.<sup>91)</sup> 성리학에 대한 수련의 연조가 짧았던 이기진에게는 한말이라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맞아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인격신같은 상제 개념이 더욱 절실하였을 것이다. 천명을 받들어 온 조선이 하늘의 명을 받아 한번 일어나면 일본이 감히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는 이기진의 다소 허황된 주장에서도 그런 소망섞인 정서를 읽을 수 있다.

## VI. 맺음말

이기진은 한말의 제천의병에서 대장 유인석의 종사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충주의 하곡이라는 동성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장담에서 화서학의 세례를 받은 인물인 동시에 제천의병에서 활약한 이들 중에서 재지적(在地的) 성격이 두드러진 인물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교육을 받던 그는 장담에 출입하면서 비로소 수준 높은 심성론과 화이론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발령에 즈음하여 유인석과 동문들을 좇아 의병에 투신하여 활동했고, 이후 향리에서 교육과 향약 운동에 매진한 인물이다. 평탄치 않았던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가 어떠한 정체성(正體性)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구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이기진의 문집 중에 나타나는 선대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왕족의 후예라

90) 금장태, 『동서교섭과 근대한국사상』, 성균관대 출판부, 1984, 81면.

91) 이소응은 스승인 성재가 평소에 ‘對越上帝，顧謨明命’의 두 구절을 생도들에게 외게 하여 上帝의 진면목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를 주자가 강조한 ‘尊德性齋銘’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것으로 자부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소응, 『習齋集』 권52, 어록, 11면 하- 12면 상.

는 자부심, 그것도 척사적 내력을 갖는 조상을 모셨다는 의식, 명분을 중시하면서도 지역 사회에 경제적 기틀을 확보하려는 재지사족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신 자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길 만큼 이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기진의 이러한 정체성은 의병에 뛰어 들고, 향촌에서의 향약운동에 헌신한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화서학과와 접촉하면서 화서-성재-의암을 소왕(素王)으로 인식하는 도통의식,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신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화이론이었을 것이다.

그의 화이론은 우리 문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우월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화·이의 분별은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행하는가에 달렸고, 그 준거를 일상에서의 실천에서 찾았다. 그가 범복을 고수하고 의병에 뛰어 들었던 것은 단발령과 흑의령 등으로 인하여 중화의 전통이 영영 끊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였다. 이런 점에서 그의 화이론은 많은 동지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기진의 저술에는 ‘상제(上帝)’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초월적, 절대적인 인격신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송대의 성리학 체계에 오게 되면 합리적인 리(理)로 대체되면서 그 성격이 탈색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기진이 몸담았던 화서학과와의 문적 속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개념이었다. 이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그의 이기론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고, 그가 직면했던 현실이 ‘양맥이 영영 끊어져 버린 듯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기진은 강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문에 전하는 척사적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인물이었다. 그렇지만 상제에 대한 갈구에서 보듯이 그는 스승들과는 차별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측면은 화서학과에 가담한 경력의 일천하였던 것, 그리고 의병전쟁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체계적인 수학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때문이었다. 화서학도를 자부하면서도 그가 지탄했던 시절의 변화 속에서 출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것도 그의 신념과 사상이 철저히 못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예로 보인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에 호좌의진의 출범기에 중요한 대장 종사를 맡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재지적 기반이 고려되었던 탓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의진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長潭講錄』(필사본)  
박정수,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유인석, 『毅菴集』  
유중교, 『省齋集』  
이기진, 『明窩集』  
이소승, 『習齋集』  
진덕수, 『心經附註』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이구영, 『호서의병사적』, 수서원, 1994.  
구완회, 「한말 을미의병기 장충식의 생애와 의병노선」, 『조선사연구』 13, 2004.  
구완회, 「한말 의병장 정운경의 생애」, 『조선사연구』 14, 2005.  
김도형, 「의암 유인석의 정치사상 연구」, 『한국사연구』 25, 1979.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박민영, 「구한말 서북 변경지역의 의병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박민영, 「의암 유인석의 위정척사운동」, 『청계사학』 3, 1986.  
박성수, 「구한말 의병전쟁과 유교적 애국사상」, 『대동문화연구』 6·7, 1970.  
박성수, 「구한말 의병전쟁과 유교적 애국사상」, 『대동문화연구』 6·7, 1970.  
유명중, 「의군도총재 유인석의 사상」, 『동양문화』 17, 1976.  
유병용, 「유인석 제천의병항쟁의 제한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 『강원의병운동사』, 1987.  
유한철, 『유인석의 사상과 의병활동』, 독립기념관, 1992.  
유한철, 「유인석 의병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6.  
이동우, 「의병장 유인석의 의병운동고」, 『성대사림』 2, 1977.  
최재우, 「의병 이기진 연구」, 『예성문화』 9, 1988.

【abstract】

## Righteous Army Officer Yi Ki-jin(李起振: 1869-1908)'s Life and Thought

Ku Wan-hoe(Semyung University)

Hojwauijin(湖左義陣) is one of the most famous corps of the righteous army that arose against Japan's intervention in the end of Choson Dynasty. So far the studies on the leadership of Hojwauijin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School of Yi Hang-ro whose slogan was 'protect the orthodoxy and reject heterodoxy', while few have shown their concern about the families that had lived for generations in 'Four regions' that were the bases of Hojwauijin.

Yi Ki-jin was born in a village where one of the royal families settled down in the early 17th century. He studied Confucianism just like everyone else and became a member of the Yi Hangro School led by Yu Jungkyo(柳重教) in his early twenties.

After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in the late 1895, he took part in the honorable "Hojwauijin" as Jongsa(從事) that was private secretary of the Chief Commander Yu Inseok(柳麟錫). He devoted himself to struggle against Japan, and his neighbors followed him.

In his writings he emphasized denouncing the foreign influences and giving his fealty to the nation as a loyal subject, which were the reason he was involved in the righteous army and the conclusion reached with pride after struggle against Japan. It doesn't seem, however, that his participation had a philosophical background in that

his writings were full of prayers to Sangje(上帝), the incarnation of God of Heaven, which presents a sharp contrast with Sung confucians' attitude sticking to logical theory.

Yi Ki-jin's such a view of the world suggests that all the righteous army members might not have had one exclusive ideology, rather it appears that people of various philosophical backgrounds put together to fight against Japan. In case of Yi, he participated in the struggle as a respectable scholar of a prestigious family having a strong foothold in the region, and so did his neighbors, influenced by him. It can be assumed that he was appointed to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righteous army by taking his strong regional foothold into consideration. (Semyung University)

Key words : Righteous Army(義兵), Sangje(上帝), the School of Yi Hang-ro(華西學派), Yu Inseok(柳麟錫), Hojwauijin(湖左義陣), Yi Ki-jin(李起振)